

[사회]

■ 29년만에 '금의환향' 슈퍼볼 영웅 하인스 워드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 진다!〉

“한국 국민 뜨거운 성원에 감사”

어머니와 9박10일간 뿌리찾기

‘혼혈아동과 만남행사’ 등 참석

“꿈은 이루어 진다(Dreams come true)”

한국과 미국사회를 감동으로 뒤흔든 혼혈 한국인 스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혼혈 한국인으로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슈퍼볼에서 MVP(최우수선수)에 선정된 하인스 워드(Hindes Ward·30)가 3일 오후 어머니 김영희(59)씨와 함께 방한했다.

1살 때인 1977년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뒤 29년만에 ‘금의환향’이며, ‘어머니와의 약속(Promise to Mother)’으로 명명된 이번 방문은 뿌리찾기를 위한 여정인 셈이다. 김씨는 3년만에 모국을 다시 찾았다.

워드 모자는 2일 오후 1시10분(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대한항공 KE036편에 탑승, 이날 오후 4시5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워드가 착용한 회색 티셔츠와 감색 야구모자에는 우리나라 브랜드로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후부’(FUBU) 로고가 새겨져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처음에는 약간 긴장된 표정이었으나 아들이 그의 어깨를 감싸안고 손을 흔들자 이내 얼굴에 웃음을 띠며 환영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워드는 소감과 계획을 묻자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와서 기쁘다. 어머니가 자란 곳 등을 관광하고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울 계획”이라고 답했다.

워드는 “어머니와 오붓한 시간을 갖고 싶다. 내가 태어난 서울의 병원을 방문하고 한국을 식도 먹고 싶다”고 말했다. 워드는 특히 “한국 국민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항에 내린 뒤 곧바로 숙소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떠났다. 워드 모자는 4일 오전 10시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입국 기자회견을 연 뒤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워드는 5일 서울에서 명예시민증을 받고 6일에는 자신이 태어났던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을 방문한다.

워드 모자는 8일 팔복재단이 주최하는 ‘혼혈 아동과의 만남행사’에 참석하고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프로 야구 개막전 시구자로 나서는 등 9박10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날 워드 모자의 방한에는 워드의 개인 사진사인 여재연(34)씨와 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사우스웨스턴 로스쿨 출신으로, 한국의 로펌 리인터내셔널과 함께 워드의 한국측 일정을 맡은 김해원(39)씨 등이 동행했다.

/서울=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늘 최고 80mm 호우

광주·전남 강풍·번개 동반

맑고 밝은 봄날씨가 시작한다는 ‘청명’(淸明)을 하루 앞둔 4일, 광주에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광주·전남 지방에 20~60mm의 비가 내리고, 곳에 따라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라며 “4일 낮부터 광주에 호우예비특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호남지방 상공에 남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이 지나가기 때문으로, 강한 바람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호우예비특보’는 12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80m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기상청은 그러나 이번 비가 호우주의보(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일 때)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며, 5일 새벽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또 4일 오전을 기해 전남북 해안지방과 대흑산도·홍도에 강풍 예비특보(초당 14m)를 내리고, 서해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다의 물결이 전 해상에서 2~4m로 높게 일고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KT등 국내 4대 인터넷 가입자 771만명 개인정보 불법유출

건당 1원 판매 12명 적발

국내 인터넷 가입자 1천240만명의 62.2%에 해당하는 771만명의 개인정보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가입자 정보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7·텔레마케팅회사 대표)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 유통에 연루되거나 불법 개인정보를 구입해 고객유치 등에 활용한 박모(25) 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771만건의 가입자 정보를 확보, 건당 1원에 판매한 혐의다.

불법 유통정보는 KT·하나로통신·두루넷·온세통신 등 국내 4대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가입자 정보였다. 또 정보를 구매할 업자는 대부분 지난해 신규 시장에 진출한 파워콤과 관련된 고객유치 영업을 담당하는 텔레마케팅 회사 관계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뿐 아니라 고객 가족관계 정보까지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국내 외국계회사 내선접속 국제전화 1억상당 불법사용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3일 국내 외국계 회사의 내선전화에 무단 접속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 선불휴대전화를 판매한 홍풍 통신업체 K사 등 3곳을 적발, 홍풍 인터넷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K사 등은 지난해 말부터 홍풍에서 국내 외국계 회사들의 내선전화에 바로 접속 가능한 선불카드와 선불휴대전화를 판매해 해당 기

업들에 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를 구입한 사람은 주로 홍풍에 살고 있는 중동·아랍계인들로, 이들은 서울 강남구 프랑스게 B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9전화에 걸쳐 2천 100만원 상당의 국제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사 등은 전화교환기에 장착된 내선직접호출기능(DISIA)이 출고시 ‘꺼짐’ 상태로 돼 있어 비밀번호 없이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선불카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폭우 쏟아진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호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4월 4일

(음 3월 7일) <전국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광주, 서울, 대전, 부산, 제주, etc.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6:20 썰물 < 11:28, 여수 밀물 < 00:45 썰물 < 06:47

▲해돋이 06:16 ▲해질 18:56 ▲달돋이 10:01 ▲달질 00:3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5 days: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세계 최초 땃줄성분 이용 난치성 안구건조증 치료

전대병원 윤경철 교수팀

환자 90%이상 증상 호전

세계 최초로 땃줄을 이용, 중증 난치성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전남대병원 윤경철 교수팀에 의해 개발됐다.

3일 윤 교수에 따르면 재대혈청에서 추출한 점안액을 중증 안구 건조증 환자 18명에게 2개월 동안 투여한 결과, 눈 건조증·눈물분비·안구표면 손상 등의 증상 90% 이상 호전됐다는 것이다.

윤 교수팀은 땃줄에서 혈액성분을 제거하고 눈물성분만을 이

용했으며, 혈액형 등이 다르더라도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재대혈청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재대혈청은 원심분리를 통해 산모의 태반에서 추출했으며 눈에 필수적인 눈물성분과 성장인자들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다.

안구 건조증은 40~50대에서 흔히 나타나며, 지금까지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거나 눈물점 폐쇄 등으로 치료해 왔다. 하지만 몸안의 모든 점막이 마르는 쇼그렌 환자나 노인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환자에게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노동계 춘闘

6일부터 본격화

민주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6~14일 총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운송노조 덤프 연대는 6일부터 ▲화물과 동일한 유가 보조 ▲적정한 운반단가 지급 등

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도 오는 7일부터 권역별 집회를 갖는다. 6일엔 한미 FTA 저지 전국순례단의 광주 집회가 예정돼 있다. 또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합법노조 전환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경간 갈등이 조만간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주희기자 jhlhm@kwangju.co.kr

영어의 기초가 대략난감일 때 핫! 기적의 3총사!

G기탄출판

아시아가 인정한 바로 그 책! 기적같은 영문법

일본, 중국, 대만, 미국에 판매 수출! 대형서점 어학부문에 3년 연속 베스트셀러!



1800영단어를 단숨에! 기적같은 영단어암기법

중국, 대만 판매 수출! 1800영단어 암기에 필수! 이해당첨률 90% 이상! 암기부담 없이! 암기시간 단축! 암기효과 극대화!



어렵고 무리로 단숨에 배우는! 기적같은 영숙어

두조건 외우기만 하면 영숙어! 이제는 문장도 함께 배우고 외우자! 문법학에 가장 우수해진 내파어! (17개가 바와에 포함!) 영숙어의 비밀로 영숙어의 비밀을 알려 준다!



gitan.co.kr <7일간 인터넷판매가 되세요>

▶ 전국 유명서점에서 최신 판매중 ▶ 문의 : (02)586-1007